

# 고려 백고좌법회 재현

## 성재문화원 고증 거쳐 10월 19일 봉행



10월 19일 부산 백스코 제1전시실에서 고려시대 백고좌법회가 재현됐다.

고려시대 이후 맥이 끊긴 백고좌 대법회가 750년 만에 부산에서 되살아났다.

부산 성재문화원(원장 이강원)은 10월 19일 오후 1시 부산 백스코 제1전시실에서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화합과 국가경제발전'을 기원하는 백고좌 대법회를 열었다.

이번 법회는 성재문화원이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고려 원종 당시 백고좌법회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100년의 부처님을 모시고 100명의 스님이 참석, 100가지 꽃과 과일 등이 재단에 올랐다.

증명법사로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미룡사 주지 정각 스님이 각각 전제대회상, 갈마대회상, 교수대화상으로 분해 '십중대계'에 대해 설법했다.

정여 스님은 법어에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만큼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인 참다운 불성을 깨달아, 스스로 우주의 근원임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중생이 아닐 것"이라며 함께 부처님법을 공부하자고 격려했다.

이강원 원장은 "지난 750년간 잊혀졌던 우리 불교문화의 뿌리를 찾는 데 역사, 문화적 의의가 크다"며 "이번 법회를 통해 우리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인맥상과 어려운 국가경제 위기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고좌 대법회는 100인의 큰 스님이 100가지 공양과 100가지 꽃으로 부처님 앞에 축원 드리는 것으로 신라 증평왕 때 황룡사에서 개설된 이래, 고려 원종 이후 열리지 않던 중 750년 만에 부산에서 처음 재현됐다. 박지원 기자

# “만일염불선으로 정토왕생”

## 백련정사 11월 12일 '만일염불회' 창설

부산 백련정사(주지 원산)는 도량불사 회향을 맞아 '만일동참 만일염불회'를 창설한다.

영축총림 통도사 염불원 백련정사는 11월 12일 오전 10시 백련정사 큰법당에서 '만일동참 만일염불회'의 입재법회를 갖고, 1만 일간 기도에 들어간다.

만일염불회는 1만 명이 한자리에 1만 일간 염불선을 통해 깨달음과 안락을 얻고 정토에 왕생을 발원하는 기도로,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며 백련정사의 창사 정신이기도 하다.

현재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인 옛 백련암의 누각에는 '백련정사 만일승회기'라는 제목의 장문이 새겨져 있다.

누각에는 '옛 동진 때 혜원 법사가 여산 동림사에서 백련결사를 결성해 100명이 깨달음을 얻었고, 신라 발징 화상은 건봉사에서 만일염불회를 창설해 31인의 육신이 허공에 올라가게 됐다'는 내용의 '만일승회기' 전문이 기록돼 있다.

주지 원산 스님은 "그 후 더 이상 허공에 올라가는 기적은 없었으나 전국 각지의 제방에서 그 뜻을 계승해 만일염불회를 창설하고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는 등 말세 수행의 좋은 법칙이 됐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있다"며 "우리 절의 이름을 '백련정사'라고 창명하고, 또 만일염불회라는 수행법을 누각에 새겨둔 창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도량불사 회향을 맞아 '만일동참 만일염불회'를 창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련정사는 천일기도 공덕으로 이뤄낸 아름다운 기도 도량으로 영축총림 염불원의 개원을 맞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처음 마련한 '만일동참 만일염불회'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든 시주금은 불교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불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참 신청은 입재일까지, 장기간 유숙 수행도 가능하다. (055)382-7084 박지원 기자



백련암 누각에 새겨진 '백련정사 만일승회기'.

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백련정사는 천일기도 공덕으로 이뤄낸 아름다운 기도 도량으로 영축총림 염불원의 개원을 맞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처음 마련한 '만일동참 만일염불회'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든 시주금은 불교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불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참 신청은 입재일까지, 장기간 유숙 수행도 가능하다. (055)382-7084 박지원 기자

## 대만 성지순례

### 미륵종 10월 18~21일



정사정사 주지스님이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왼쪽)에게 연혁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0월 18일부터 4일간 대만성지순례를 봉행했다. 이번 성지순례는 전국 교구원장스님들이 주축이 돼 종단스님 20명과 미륵종 각 말사 신도 150명이 동참했다.

대만의 화원에서 불교대학과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사회적으로 불우한 이웃들에게 자비정신으로 봉사하며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구니스님들만 수행정진하는 정사정사(靜思精舍)에서 성지순례단은 법회를 봉행하고 정사정사 주지 증엄(證嚴) 스님의 환대를 받았다.

영민 경남서부지사장

## 한 획 한 획 불심으로...

### 선서화전 二題... 미타선원·금강정사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 051-253-8686)이 참선수행학교 불사를 위한 선서화전을 마련했다.

10월 18일~11월 15일 미타선원 참선수행학교 1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월하 스님 글을 비롯해 고산 스님의 글 8점, 회상 스님의 그림 15점 외에도 동국대 허만욱 교수, 이다우, 전제상 등 선서화 30여점이 전시된다.

주지 하림 스님은 "참선수행학교는 재가자들을 위한 선의 생활화 구현을 위한 평생 교육의 장"이라며 "많은 분들이 불사에 동참해 마음 밭에 세세생생 무너지지 않는 공덕의 보탬을 쌓아 더없는 기쁨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수익금은 전액 참선수행학교 불사에 쓰여진다.

부산 금강정사(주지 상범)도 선서화 전시회를 연다.

'흐르는 물처럼'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부산불교회관 1층



미타선원 선서화전.

여여선갤러리에서 마련된다.

전시되는 작품은 '다라니' <반야심경> '법성계' '광명진언' <금강경> '유마니반메혹'을 4가지 색과 음양각, 부채 및 병풍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 500여 점의 선서화 등이다.

상범 스님은 "사경은 포교의 한 방법으로 부처님 법에 한걸음 더 가까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모든 분들께 희망을 안겨주고, 부처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 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

## '일체중생 부처' 신념으로 복지 한 걸

'일체중생이 부처'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및 저소득가정 등 소외된 이웃 모두를 살아있는 부처로 섬기는 부산 교계 사회복지기관의 모임인 '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1997년 7월 복지관 4곳과 수련관 1곳의 동참으로 출범해, 현재 지역사회복지관 11개소, 노인복지기관 15개소, 장애인복지기관 4개소 등 총 37개 사회복지기관이 가입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10년 사이에 7.5배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 여기에는 부활사업의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꾸준한 추진력 이 큰 힘이 됐다.

조수경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회계, 중간관리자 등 각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기관별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포상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해 모든 회원기관들이 win-win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직원연찬회 자리를 마련하고, 이날 사회복지의 문제와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는 언론인들 선정해 함께 시상하고 있다. 특히 선진화된 국내외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잘된 사례는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장기요양제도를 적용한 노인시설을 방문해 새로 도입된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대비하고, 일본 사회복지학 교수 및 시설 운영자들과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오늘의 부활사업은 모든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발원과 열정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이 중심에

10년을 한결같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지켜준 산증인 해충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이 있다.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으로 영호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충 스님은 "불교를 통해 개인은 평화를 얻고 사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 남의 기쁨과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기관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부활사업은 11월 6일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더 큰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10주년을 맞이한 불국토를 발원 밭도 하지만, 동국대 박경일 교수로부터 사회복지의 미래에 관한 특강을 듣는 등

성숙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그간 협의회가 지나온 경험들과 발전 과정을 정리해 <10년사>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조수경 사무국장은 "<10년사>에는 발간사 및 협회의 역사와 발전방향, 법인현황, 사회복지 분야별 추진배경과 실적, 각 법인 대표이사 칼럼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불교사회복지포럼 및 연구소를 활성화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전문인력 불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사보 출판, 불교사회복지분야 논문시상, 대학생신청사업공모 등으로 걸어온 10년보다 갈 길은 더욱 멀다.

부산 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는 불국토의 꽃을 활짝 피워낼 줄이요, 우리 사회의 아프고 소외된 이웃, 병들고 늙어 아픈 이들을 보듬어 끌어안는 불성의 땅이다. (051)532-0115 박지원 기자



부산 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 7월 9~12일 일본연수.

## 월호 스님 "나와 남을 참방생하자"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10월 24일 저녁 7시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에서 월호 스님 특별 초청대법회를 열었다.

'자신을 방생하고 남도 방생하자'는 주제로 조선시대 휴정 스님의 불교개론서 <선가귀감> 중 선어록 '한 물건(-物)'과 '자신을 방생하고 남도 방생하자'에 관해 약 1시간 30분간 법문 했다.

월호 스님은 '부처님과 조사가 세

상에 나오심은 마치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남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듯 웃을 일은 자주 웃다보면 생기는 것. 이것이 참다운 방생이고 인과법칙을 현실에서 살려나가는 방법"이라며 "보살의 수행은 공으로 향하는 수행이 아닌 공으로부터 출발하는 수행. 나와 남을 방생하는 것이야말로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바로잡습니다.

702호 김해·천안·원주·포항불교신약회 연합법회 기사에서 김제 청암사를 김천 청암사로 수정합니다.

천일기도의 공덕으로 성취한 아름다운 기도의 전당 백련정사

# 통도사 백련정사 만인동참 만일염불회 모집

불자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옛 백련암(백련정사) 누각에 새겨진 '백련정사 만일승회기(白蓮精舍 萬日勝會記)'에 따르면 옛 동진 때 혜원 법사가 여산 동림사에서 백련결사를 결성해 100여명이 깨달음을 얻었고, 신라 발징 화상은 건봉사에서 만일염불회를 창설해 31인이 육신으로 허공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후 전국 각지의 제방에서 그 뜻을 계승해 만일염불회를 창설하고 부지런히 수행정진하는 등 말세의 좋은 법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영축총림 통도사 염불원 백련정사의 도량불사 회향을 맞아 백련정사의 창명 정신과 과거 전통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염불선을 통해 깨달음과 안락을 얻고 정토에 왕생을 발원하는 '만인동참 만일염불회'에 동참할 불자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모든 시주금은 불교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불사에 사용되오니 신심 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염불원장 원산 도 명 합장

### ▶ 천일기도 초하루 법회(8760일째)

일 시: 불기 2552년 음력 10월 초하루(양력 10월 29일) 오전 10시

### ▶ 만인동참 만일염불회 입재

일 시: 불기 2552년 음력 10월 15일(양력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0,000일간

장 소: 백련정사 큰법당  
\*장기간 유숙 수행도 가능합니다.